

“반도체株, 상승랠리 시작”... 8만전자 터치, 20만닉스 코앞

삼성전자, 장중 8만원까지 올라
SK하이닉, 신고가 이틀연속 경신
HBM 수요 늘며 추가상승 기대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 반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업사이클 초입 단계인 만큼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도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일주일 사이 각각 3.77%, 15.78%씩 상승했다. 특히 글로벌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 53%를 기록한 SK하이닉스는 HBM 독점 공급 중인 엔비디아의 수혜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전날에도 17만6600원까지 올랐으며, 이날도 18만1200원에 마감해 신고가를 이틀연속 경신했다. 이를 사이에만 6.96% 상승하면서 ‘20만닉스’에 가까워진 모습이다.

인공지능(AI) 강세에 따른 반도체 훈풍에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삼성전자도 전날 장중 8만100원까지 오르면서 ‘8만전자’ 돌파 가능성을 보여줬다. 삼성전자가 8만원 선을 터치한 것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다만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하면서 전장보다 0.13% 떨어진 7만9800원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4749억원, SK하이닉스를 1232억원 사들였다. 코스피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순매수액이 6230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셈이다.

올해 들어 26일까지는 삼성전자를 4조4492억원, SK하이닉스를 1조5251억원씩 담으면서 총합 약 6조원여치나 사들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6일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0.7%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디램(DRAM)의 공급 제한이 지속됐던 만큼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메모리 업

사이클을 지지하는 3쪽으로 시장 의견이 모이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D램은 공급 제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은 최소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D램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다만 2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추가 조정을 겪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SK하이닉스는 강세를 유지했지만, 삼성전자는 개인이 1376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기존 주도 업종 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대응하거나, 이차전자·플랫폼 등 최근 강세장에서 소외됐던 업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감사보고서 안낸 기업 46곳... 투자자 초긴장

감사의견 비적정도 속출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 되어 가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상장폐지의 위기에 봉착했다. 게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40개사에 달해 이들 기업 투자 주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시스템 카인드(KIND)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 32곳 등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통상 정기주총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3월 마지막 거래일이 29일이기엔 적어도 20~22일 중에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됐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아직도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도 ‘단순 지연’ 사유를 밝히며 거래정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과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 3분의 1 가량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긴장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29일까지도 미제출 상태로

남아있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경영부실이 심화된 종목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은 해마다 40~60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이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 여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투명한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한정 의견이 나오면 관리종목, 그 이하 등급인 부적정과 의견거절 의견을 받을 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허정윤 기자

“아시아 경제·금융시장 경쟁력 강조”

표·오세아니아 거래소 연맹 총회

한국거래소는 제38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거래소 연맹(AOSEF) 연차총회를 27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AOSEF는 아시아 지역 거래소의 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3개국 17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연차총회는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4번째 총회로, 본래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개최됐다. 이날 대만증권거래소(TWSE) 셔먼 린 이사장 등

아시아 지역 13개국 17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 및 고위급 임원 50여 명이 각 증권시장의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총회 의장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한국 자본시장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축사에서 각국 거래소 관계자의 부산 금융 중심지 방문을 환영했으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거래소 간 교류의 장이 열린 것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신하은 기자

IB 명가 NH證, ‘정통 영업맨’ 윤병운 체제 출범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내부역량 결집 협업·시스템 효율화”

윤병운 NH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CEO임과 동시에 영업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윤병운 IB사업부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30년 넘게 NH투자증권에 몸담은 인물로 기업금융팀장,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치며 기업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윤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이번 NH투자증권의 정기주총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이사회의장 자격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정의장은 사내이사 선임 안전에 앞서 “윤병운 후보자는 커버리지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IB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는 자본시장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윤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부역량 결집 ▲성과 및 내부통제 ▲사회



윤병운 NH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적 책임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각자 영역, 각사업부·부문 안에서 작동 중이던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을 ‘대표이사이자 영업맨’이라고 지칭하면서 “관료·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영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지원조직을 운영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윤 사장은 “성과가 있는 조직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있을 것이며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협업과, 시스템 효율화 과정 속 기여와 결과에도 투명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약속한다”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끝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 기조를 수행해 우리의 성장이 주주에게 환원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 가겠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히 모색해 나가고, ESG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했다.

1주당 현금배당금은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 총 배당액은 2808억 원으로 결의했다. 신임 사외 이사로는 민승규 세종대학교 교수와 강주영 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했고 기존 박희식 사외이사 및 이보원 상근감사위원은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체투자 시너지 기대”

자회사 멀티에셋자산운용 합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회사 멀티에셋자산운용을 합병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멀티에셋자산운용 합병을 승인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100% 자회사인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다. 지난 2016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산은자산운용을 인수한 후 사명을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 이후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 선박, 기업금융, NPL 등에서 두각을

보이며 대체투자 특화 운용사로 성장했다. 2023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약 7조원으로, 기존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자산 305조원을 합산하면 총 312조원 규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합병으로 대체투자 사업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의 운용역량과 경험을 결합해 미래에셋그룹의 대체투자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글로벌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대체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